

혼조조카마치 해설판 4 조카초닌마치의 중심지 「사카나마치」 「나카마치」 「오마치」

에도 시대 초기의 혼조조카는 미나토마치로 알려져 있던 후루유키마치를 감싸는 형태로 창건되었습니다. 후루유키마치와 부케마치 사이에 있는 초닌마치는 넓게 「데토마치」라 불리며 각각 「데토오마치」 「데토우시로마치」 「데토테라미치(히키지마치)」 등으로 불렸습니다. 이 데토마치에는 동서로 달리는 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가늘고 길쭉한 단자쿠형(직사각형) 저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. 현재에도 저택 분할이나 사원배치의 모습이 잘 남아있습니다.

후루유키마치에서 오마치에 이르는 길은 일본해 연안을 지나는 우슈하마 가도(사카타가도, 훗코쿠가도라고도 함)에서 혼조조카마치로 들어가기 위한 주요 도로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사카나마치, 나카마치, 오마치는 그 중심을 이루는 장소이며 선박운송업자 도매상 등 유력한 상가들이 즐비했습니다.

나카마치에 있는 유리혼조 경찰서 부지는 마을 관리들의 필두인 데토마치 명주 「호소야 요소자에몬(細屋与惣左衛門家)」의 저택이었습니다. 저택 뒤편에는 마을의 정무를 맡은 「가이쇼(会所)」가 있었고 문 앞에는 「고사쓰바」가 있었습니다. 또 전국을 측량해 일본 지도를 만든 이노 타다타카(伊能忠敬)가 교와 2년(1802년)에 호소야씨 저택에서 숙박했습니다. 그리고 가몬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현재지(사카나마치)에는 숙로(동네 명주에 버금가는 직책)를 맡은 「이케다 카몬노스케 저택(池田掃部之助家)」이 있으며 공원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.

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.